

2008. 5. 14

	2008. 5. 13.		
	(368-4414)	02-368-4421	2

: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은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국내 보험사들은 국내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환경과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발굴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진출 실적은 미미한 형편이며 국내 보험사의 글로벌화는 요원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진출 유망지역에 대한 다양한 시장정보와 글로벌 보험사의 해외진출 사례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보험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국내 보험사의 진출 유망지역으로 중국, 인도, 베트남을 꼽고 있으며 세 나라의 보험산업환경, 진출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세 나라는 보험 침투도가 낮은 반면(8% 이하) 보험료 성장률이 상위(연평균 성장률 20% 이상)에 속하여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출이 유리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보고서가 제시한 구체적인 해외진출 전략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철저한 현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국내 보험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 및 영업의 현지화, 인력 및 조직의 현지화, 제도 및 문화의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현지 사회활동 및 현지 정부 지원활동이나 문화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대형화 및 M&A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국내 보험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장 등을 통한 자본력 확충이 시급하며,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업무영역 확대 및 M&A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중소형사들의 경우 대형화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보험사에서 탈피하여 겸업화, 금융그룹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수익성과 효율성 위주의 내실 경영에 주력함으로써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회사별 특성에 맞추어 장기적 진출 플랜과 특화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셋째, 국제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인력확보 및 양성이 필요하다. 해외시장 개척에서 가장 힘든 일은 해외시장을 효과적으로 지휘할 책임자를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의 현지 시장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영능력을 갖춘 노련한 인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니즈의 복잡화,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경제, 법률, 회계 등 다양한 자질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요구된다.

끝으로, 정책당국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국내보험사가 현지국에 진출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법적/규제적인 요인들에 대해 정부차원의 해소노력이 필요하며, 현지진출 보험사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운영도 요구된다고 밝히고, 국내보험사의 해외진출에 따른 금융리스크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보고서는 부록을 통해 AIG, Allianz, AXA, ING, Metlife 등 대표적인 글로벌 보험사들의 해외진출 사례와 전략을 수록하여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